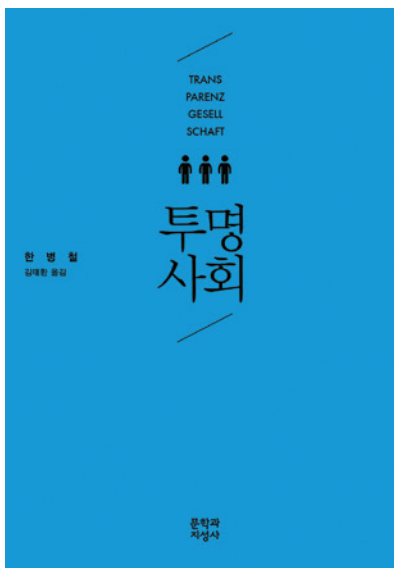


책으로 사회를 읽다

신뢰보다 감시를 선택한 사회

— ‘투명사회’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투명사회 표지

/ 출처 : 네이버 카페 '보성 독자글 황칠농원'

‘투명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투명성은 대개 ‘신뢰’를 상징한다고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마음에 감추는 것이 없고 속 시원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투명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즘 들어 정치인에게 투명성이 그 자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것과 같은 이치다.

이에 따라 사회는 삶의 영역에서 점차 비밀의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매체의 발달이 대표적인 예다. 인터넷, SNS 등 뉴미디어는 개인의 행적을 세세하게 남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더욱 손쉽게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을 지지하는 이들은 “긴밀히 연결된 인간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는 그 장점을 종종 경험한다.

그런데 투명한 사회가 정말 우리에게 혜택만 선사할까? 투명성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면? 출간된 지 벌써 8년이나 흐른 ‘투명사회’가 이를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저자인 한병철 교수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지금의 시스템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서로서로 감시하는 통제 사회를 양산한다고 비판한다. 출간 당시에도 이 책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정보화 시대의 모순과 한계점들을 드러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개인의 신상과 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저자가 말한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투명사회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부정성을 허용하지 않는 투명사회

저자는 투명성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투명사회’라고 지칭한다. 이 투명사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궁정적’이다. 여기서 궁정적이라는 말은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가 아니다. 투명성의 시스템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의 흐름에서 부정적 요소들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현대 사회는 정보가 대량 생산되고 빠르게 유통되는 시대다. 정보의 양과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 장벽으로 이견, 갈등, 다름을 꼽았고 이를 ‘부정성’이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는 현대 사회의 긍정 문화를 잘 보여준다. / 출처 : 픽사베이(왼쪽), 지큐코리아(오른쪽)

규정했다. 정보의 유통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서로 상충하는 정보나 의견이 많아질수록 커뮤니케이션이 지체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반대’보다는 ‘동의’ 혹은 ‘긍정’을 선호하고, 점차 똑같은 것만을 추구하는 획일화된 사회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획일화된 흐름이 지속할수록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투명해진다.

실제 사례를 생각해보자. 사진 업로드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는 하트 모양의 ‘좋아요’ 버튼이 있다. 그 외의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기능은 없다. 오직 긍정적인 의미의 의견만 표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나,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 또한 긍정사회의 단면이다. 호의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에 비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킨다. 즉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페이스북만 봐도 게시물에 ‘좋아요’가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가장 많다.

그렇다면 긍정하고 동의하는 문화가 왜 문제일까? 소통하는데 갈등이 없고 원활하다면 사회가 통합되는데도 더 좋지 않을까? 이에 대한 저자의 반박은 이렇다. “사회는 언제나 변증법에 의해 발전해 왔다. 서로 대립하는 의견이 충돌하여 새로운 사상과 이론이 탄생했고 이것이 세상을 진보시켰다. 인간은 고뇌와 갈등을 통해 성장한다.” 굳이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도 공감한다. 부딪힘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게 아니다. 갈등의 부재는 역으로 소수 의견이 짓눌려 억압받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것이 긍정만을 원하는 사회가 위험한 이유다.

이 대목에서 ‘부정성’에 대한 저자의 관념이 잘 드러난다. 사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부정성’이다. 부정성은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투명성의 개념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 매끈하고 원활한 정보의 흐름을 막는 존재, 이를테면 갈등, 대립, 아날로그, 비밀, 저항 등이다. 인간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정성들을 하나하나 극복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하고, 빠르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저자는 이 문명의 진보가 역설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빼앗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전히 부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부정적이라고만 생각하던 개념으로 우리 사회를 비판한 저자의 역발상이 돋보인다.

앞서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양과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가치가 생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정보, 더 나아가 자신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모두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전시사회’라고 명명했다. 이것이 투명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다.

저자는 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고유의 가치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겉으로 드러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를 ‘제의가치’라고 표현했다. 사물의 제의가치가 그 사물이 지닌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명사회에서는 보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도 남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오직 드러난 것만이 인정받는다. 이러한 세태는 자본주의 논리와 결합하여 더욱 극대화되었다. 모든 사물은 상품이 되어 전시된다. 가격이 매겨지지 않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들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여 전시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발터 벤야민이 주장한 ‘인간의 얼굴’을 예로 든다. 나는 여기서 ‘얼굴’을, 한 개인의 삶과 동일시해도 좋다고 생

각한다. 사물의 제의가치에서 마지막 보루는 인간의 얼굴인데, 페이스북과 포토샵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얼굴이 전시가치화 되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이 상품화되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디지털 매체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타인에게 공개된다. 여러 사람의 콘텐츠가 쌓이다 보면 모두가 아름답고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일정한 기준이 생긴다. 결국, 사람들은 그 척도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즉 디지털의 투명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전시된 사진을 올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나의 일상을 올리는 것뿐인데 이를 상품이라고까지 할 수 있나?”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콘텐츠 중에 ‘브이로그(VLOG)’가 있다.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콘텐츠를 말한다. 지금도 유명 유튜버는 브이로그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평범한 일반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의 사생활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신뢰가 무너진 통제사회로 가는 길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신을 노출하는 투명 시대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바로 서로서로 감시하는 무한 통제 사회다. 투명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통제’이다. 여기서 저자는 벤담의 ‘파놉티콘’을 들어 논지를 펼친다.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수감자들은 철저히 격리되어 중앙 시스템의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받는다. 즉 강제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는 사회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파놉티콘은 다르다. 우선 중앙의 감시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감자



브이로그 속 나의 모습은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나인가? / 출처 : Pexels



벤담의 파놉티콘 / 출처 : 위키피디아

들은 고립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자신을 노출한다. 그 결과 자발적인 감시 체제가 완성된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벤담의 파놉티콘보다 더욱 무서운 감시체제에 돌입했다고 말한다. 강제적인 감시는 당하는 사람이 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투명사회의 통제 시스템하에서 시민들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자유롭다고 착각한다. 디지털 파놉티콘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전시하면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철저한 자유의지에 의한 노출이다. 지금 당장 소셜미디어만 들어가도 내 지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심지어 아예 생면부지인 사람까지도.



디지털 미디어에 전시된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노출되는지 알 수 없다. / 출처: 픽사베이

상대방의 내밀한 영역까지 쉽게 알 수 있는 투명사회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약화시킨다. 저자를 따르면 신뢰는 타인에 대한 무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관계를 맺게 해주는 힘이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신뢰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투명성이 심화할수록 신뢰의 가치에 기댈 필요는 줄어들고, 그 자리를 통제와 감시가 대신하게 된다. 그 결과 이 자발적 통제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돌이켜보면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등장했다. IMF를 겪으며 기업의 투명한 운영이 요구됐고, 권력이 부패하면서 정치 과정의 투명성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신뢰 위에 세워진 사회는 투명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믿음이 사라진 사회에서 서로를 무한 감시하는 통제사회, 이것이 저자가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한 투명사회의 본질이다. 또한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야 주목받는 요즘 세태에 일침을 가한다. 물론, 저자의 주장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회 상황을 보면 아직까진 자발적인 감시보다 중앙 권력의 통제가 훨씬 강력하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사생활을 세세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밖에 디지털 사회가 우리 삶에 가져다준 장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평범한 사람도 가진 자에 대항할 힘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 책에서는 투명사회가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날카로운 비판만 있을 뿐이다. 읽고 나면 내가 사는 사회의 모든 점이 갑자기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비판 없이 디지털 사회를 수용하며 살았던 게 아닐까? 저자는 우리에게 이 점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현대 사회의 단면들을 역으로 비판했다는 점만으로, 이 책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디지털 사회의 이면을 파헤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무료한 삶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